

■ 간행사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근대민족국가 수립의 단초를 제공한 민족적 대항쟁이었으며, 의병활동, 3.1운동,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이 상당부분 유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수집 자료들 또한 모두 한문이나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자료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2006년부터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은 1차 동학농민혁명 정부 진압자료인 『聚語』, 『兩湖招討謄錄』, 『兩湖電記』와 2차 동학농민혁명 정부 진압자료인 『先鋒陣日記』, 『巡撫使呈報牒』에 대한 번역본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2)』에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정부 진압자료인 『巡撫先鋒陣謄錄』에 대한 번역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국역총서를 통해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1894년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동학농민군이 지향하는 바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4월 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장